

메타버스 교사연수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체육수업 적용 및 활용 방안

유지은* · 류태호** 고려대학교

‘메타사피언스’는 가상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현실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신인류라는 뜻으로서 현실이 된 가상을 살아가는 미래세대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학생은 ‘포노사피언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메타버스 환경이 매우 익숙한 세대이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기초소양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을 포함시키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교육현장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체육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한 한 영역으로 보이는 만큼, 교사도 미래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도구 활용에 적응해야 하며 미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메타버스 운동을 경험한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체육 실기 수업 적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육 실기수업에 적용 가능한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직무연수에 참여한 체육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유형과 사용방법을 교육한 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후 개방형 설문과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한 설문지와 면담내용은 귀납적 분석과 내용별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수업설계 방안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경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메타버스활용 요가 프로그램의 장점은 몰입도, 자유도, 능동성으로 제시된 반면, 단점으로는 즉각적인 피드백 및 질적 평가의 어려움과 기술적 측면의 한계로 나타났다. 비대면 공간에서의 에티켓 교육과 상호작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체육 교육내용은 경쟁 종목이 아닌 개인 운동이나 경기규칙 등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과 현장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수업이며, 교육방법은 가상환경에서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질적 평가가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며, 교육경험으로는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과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체육교사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 후 그 환경에 적절한 수업설계를 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수업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사연수와 실습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메타버스 교육 환경의 기술적 한계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결방안을 얻기 위해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492)

** sport386@korea.ac.kr

초등 축구선수 아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교육의 의미 되새기기

함명환·류태호*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축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11번째 본선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유럽 프리미어리그 다득점 왕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빗장 수비의 고장 이탈리아 프로 무대에서 최상위권 팀 주전 수비수로 활약 중인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는지 최근 들어 자녀들을 축구선수로 키우고자 하는 열풍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의도치 않게 축구 선수를 희망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된 아버지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초등축구 교육환경의 현실과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현실적으로 아들을 축구 학생선수로 교육함에 있어서 깨닫게 된 교육관 형성을 통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녀가 초등 축구 선수생활을 하게 된 축구 클럽에서 5년간 부모로서 아들의 성장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연구자가 직접 느낀 문화적 환경과 체험들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자문화기술지를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은 자문화기술지 특성상 연구자 본인의 자전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개인 SNS 자료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공개, 비공개 계정 일기자료 모두 포함), 다양한 메신저 자료(카카오톡 및 기타 메신저)를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팀 내 구성원인 코치 및 동료 부모들과의 면담 및 상담 자료와 아들의 학교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및 대한축구협회 1종 등록 축구 클럽에서 주기적으로 작성한 선수평가서, 대한축구협회 경기기록 데이터 및 신체 성장 데이터 등도 수집하였다.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관련이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들을 비롯하여 전원에게 동의 절차를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관련된 영역을 나누고 분류하는 영역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된 내용은 기억과 기록의 오류가 없는지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를 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교육학 박사로서 현재 현장 운동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친 아들의 모습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은 ‘식자우환(識字憂患)’의 시선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르게 바라보는 축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모와 아들 상호 관계성의 악화를 가져왔다. 둘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축구 선수로서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일찍 결정해야 하는 현장 교육환경은 ‘치우침에 대한 위험’이었는데 이것은 ‘선택과 배제의 강요’로 부모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부모에게 현실과 타협하며 순응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실에 대한 타협과 순응으로 아들의 초등 축구 선수로서의 본격적인 생활은 부모와 자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뒷바라지’의 수고로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났다. 배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염려되는 실패에 대한 위협성의 인식, 아주 적은 성공확률에 대한 두려움, 부모 인식의 전환으로 전적으로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나타나는 아들의 긍정적 변화들(신체적, 관계적, 경기력, 자기주도성), 부모로서의 교육관에 대한 깊은 고민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의도치 않게 초등 축구 선수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면서 형성된 부모로서의 교육관은 관찰자(observer)로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려 주는 역할의 중요성이었다. 아들을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하려는 흡수자(absorber)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 있었다.

향후 연구는 축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운동종목에서 초등학생 엘리트 선수 양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 sport386@korea.ac.kr

현실적인 현장 모순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도자, 학부모, 학생선수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 상호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는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의 교육적 효과

권용철 양덕여자중학교, 조건상* 부산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육계에서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교육부, 20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제시하는 등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2).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으로 학생들의 창의 융합 역량과 소프트웨어(SW) 활용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은 이미 국가적으로 장려하며 활성화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교과에서 메이커 교육이 활용되는 것처럼 체육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와와의 융합을 통한 메이커 교육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기대해볼 수 있다(권용철, 조건상, 2022).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여 기록도전 활동과 메이커 교육을 접목한 레이저 사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직접 만든 결과물을 활용해 신체활동으로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피지컬 컴퓨팅이란 현실의 여러 현상들을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 등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해 제어하는 것을 뜻한다(O'Sullivan & Igoe, 2004).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중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로는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에 참여한 3개 학교 교사 3명(학교당 1명)과 학생 6명(학교당 2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삼각검증법, 연구 참여자 확인, 동료 검토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으며,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를 범주화한 결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교과 학습 차원에서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창의·융합 역량 신장, 흥미 및 동기유발, 자발적 참여 및 도전 등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통해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더욱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다. 또한, 만들기 과정이나 신체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유와 나눔, 협력적 문제해결력 신장 등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과 결과에서 끊임없이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신장됨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셋째, 교과 학습 차원에서 안전한 교수·학습자료, 새로운 실내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스포츠 관련 테크놀로지의 원리 이해 등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메이커 교육을 시도한 교사와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게 기록 도전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실내 체육 프로그램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함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의 원리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체육교과에 SW를 활용한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 cgs3308@pusan.ac.kr

을 함양하고, 체육교과에서 메이커 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타 교과와 달리 체육교과에서는 운동 수행 측정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구들은 SW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에서 활용하는 센서들과 사용하는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 체육교과에서도 이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간접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메이커 교육도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신장과 함께 체육교과에서의 창의 융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지역, 대상, 관련 교과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체육교과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체육교사 대상 메이커 교육 연수, 교육과정에서의 메이커 교육 적용 등이 요구된다.

메즐러 트랩의 역설: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한상모* 어정초등학교

교수학습모형은 그간 스포츠 교육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체육 교과 교육의 이론화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교수학습모형이라는 주제는 체육 교과 교육을 둘러싼 실천가와 이론가의 공통 분모였다.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교육학의 학문적 저변을 넓히고 실천가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정당화하는데 이바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연구는 교사들로부터 공리공론으로 폄하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연구자들이 교사들의 허술한 수업 실천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론적으로 완성형에 도달한 교수학습모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말단부까지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교수학습모형 중심의 사고가 스포츠 교육학의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 결정적인 영감을 준 ‘메즐러 트랩’ (최의창, 2021)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비판을 간명하면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Metzler의 분류체계에 대표되는 교수학습모형 중심의 사고가 스포츠 교육의 시야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수학습모형 중심의 사고가 더 넓은 스포츠 교육 담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교수학습모형 이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Metzler의 교수학습모형 체계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로 다른 교수학습모형이 공약가능한 측면이 있음을 예시하고, 각 교수학습모형의 구성물들(내용, 방법, 평가 등을 위한 방식)의 상호호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관조자의 경험과 당사자의 경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지-심동-정의의 교육 목적에 근거해 교수학습모형을 구획하는 Metzler의 분류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각 교수학습모형이 보다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교수학습모형 간 배타적 구획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로서 재구성 가능성, 교육적으로 적절성과 가능성이 있는 서사, 체육 수업 현상을 이해하는 인식론적 렌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업을 실천해야 하는 교사에게 여전히 유용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모형의 분류체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인식론적 한계를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교수학습모형이 교사교육에 있어서 통과례적인 내용임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체육 교과의 이해당사자들이 교수학습모형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학습모형은 스포츠 교육학을 구성하는 고전적 내용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교수학습모형은 수업 실천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수업을 하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뿐더러, 새롭게 떠오르는 논의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이론적 준거가 된다. 교수학습모형을 넘어선 스포츠 교육 담론에 공감하는 일도, 단단히 뿌리 내린 교수학습모형 중심 사고의 모순을 극복하는 일도 교수학습모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 guevara730@hanmail.net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스포츠맨십 및 비스포츠맨십의 행위 유형과 맥락 탐색

오익재* 부원중학교

박정준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중학생의 스포츠맨십 및 비스포츠맨십의 행위 유형과 행위 맥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I시 소재 B중학교의 방과 후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체크리스트, 심층 면담, 학생 성찰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스포츠맨십 및 비스포츠맨십의 요인과 행동 지표를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스포츠맨십의 4가지 요인은 비스포츠맨십의 요인에 비해 발생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맨십의 성실, 협동 요인은 각 79회씩, 배려는 70회, 공정성은 25회가 관찰되었다. 비스포츠맨십은 불성실 32회, 불협 58회, 부정 14회, 이기요인이 46회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맨십 및 비스포츠맨십의 행위 양상은 성실의 경우, '과제 몰입', '결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기', '준비와 자기관리'로, 불성실은 '과제 대충하기', '미리 포기하기', '경기 선호로 인한 연습 소홀', 협동은 '역할에 따른 책임 실천', '팀 분위기 제고', '팀 단위의 움직임'으로, 불협은 '팀원으로서 책임 의식 부재', '개인플레이와 소극적 플레이', '책임 회피'로, 공정성은 '판정 전·후 양심선언', '축구의 규범과 관습 실천'으로, 부정은 '의도적 부정행위',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무시'로, 배려는 '나와 타인의 안전 고려', '예의를 갖춘 태도', '칭찬과 양보'로, 이기는 '위험한 플레이', '불손한 태도', '불평과 욕심'으로 범주화되었다. 셋째, 스포츠맨십 및 비스포츠맨십의 행위 맥락은 스포츠 특성, 개인 특성, 활동 배경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스포츠맨십을 내면화하는 교육적 기능도 하지만 비스포츠맨십을 드러내고 고착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학생의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환경 측면에서 스포츠맨십에 호의적인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맨십 행위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학습자,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스포츠맨십 교육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스포츠맨십 지도 전문성과 실천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축구 활동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태도와 행위를 다층적으로 예측하고 유도하면서, 지도자가 스포츠맨십의 실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 dlrwo100@ice.go.kr

학교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訟事)과정과 쟁점 분석

김운상, 이주옥* 충남대학교

우리나라 교육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교육부가 2014년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교육부의 2015년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안전 영역을 신설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의 2016년~2021년 중·고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체육수업은 나머지 7개(고등학교 8개) 교과군을 포함하는 수업시간에 비해 4.07배나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2020년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 중 일부는 민사소송으로도 확산되었는데, 7(8)개 교과군을 포함하는 수업시간 안전사고 소송 건(20건)에 비해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 건(105건)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체육 교과 특성상 안전사고 노출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통계지표에 누락된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 안전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나아가, 안전사고 중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져 교육 범주의 밖으로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학교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대해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학교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19편, 학술논문 5편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개선, 교사의 역량 및 역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수업 안전사고로 송사를 겪게 되는 과정과 쟁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판례에 나타난 체육수업 안전사고 발생 배경과 처리 과정을 토대로 재판에서 각자의 권리나 의무를 법률관계로 확정받는 쟁점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송 예방, 소송 발생 시 대처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수업 운영의 핵심인 교사, 수업환경, 사건을 중심으로 특정 시기인 2016년 이후 민사 판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육수업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와 교사의 의무, 법률적 근거와 범주,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소송 유형, 판례에 나타난 소송 쟁점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는 공법보다 사법, 그중에서도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둘째, 체육수업 안전사고는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사고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 비해 민사소송으로 연계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셋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의 쟁점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교안전사고 인정기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용인 또는 기각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동안 학교 대내외 행사 지양 명령은 야외 활동과 신체활동 금지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교사가 갖는 신분적 한계, 사고가 갖는 예측불가능성 등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업 운영에 두려움을 갖거나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실천성을 바탕으로 수업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활용 범위에 대한 안내, 교육기관의 책임 변경 확대, 법률적 지원 등 교사의 책임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joowookyi@cnu.ac.kr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탐색 :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초·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쟁점들을 추출하였다. 연구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나 구성 조직과 같은 틀에 대한 개선보다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 즉, 성격(교과 역량 포함),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에 대한 교과 내부적 요구 수렴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방안을 구안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체육과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비롯하여 문서 내 포함된 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정 적용에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개선의 쟁점은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공유될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장 친화적이며 적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서 체제 및 제시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과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의 쟁점들은 교과역량에 대한 재탐색과 이에 발맞추어 교육내용 선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 구성에서 ‘안전’ 영역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부분이 체육과 교육으로의 부정합성의 문제나 ‘정서적 내용’과 같이 실제 교수·학습에의 적용 측면으로 내용 조직의 부적절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체육 교육과정의 개선과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공통적이거나 주요하게 제안된 의견들을 추출해, 타당성에 동의 여부와 이유를 묻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목별로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과역량의 개선에 대해 제기된 쟁점 사항은 먼저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진술의 의미와 신체활동 가치 및 교과역량의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자의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체적 차원의 역량을 제시하지 않는 총론 차원의 핵심 역량과 신체활동을 교과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의 도구로 삼고 있는 체육과 입장의 교과역량이 서로 명확하게 이해되는 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세 번째는 체육과 교과역량이 특정 내용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교육내용에 대해 제한된 역량을 연결하거나 역량과 내용 영역이 일대일 대응 관계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의 구분 및 진술 방식의 개선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총괄 목표의 경우 교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격 항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학교급별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급 혹은 학교급(학년군)별 차이점이나 혹은 연계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세부 목표에 제시된 용어나 진술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반복적인 형태로 진술됨으로 목표 체계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목표 진술이 모호하고 학교급별 특성이나 수준에 대한 차별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내용 영역의 구성과 제시 방식의 개선에 대해 제기된 쟁점 사항은 첫 번째로, 체육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역량, 신체활동 가치, 구체적 내용 요소가 연계되는 방식 또는 관계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수요자들이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교과역량과 교육 내용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므로 교과역량과 교육 내용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포함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개념 간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체육과 지식의 의미나 구조에 대해 이해

가 불분명하며,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자의 합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에서 어떤 방식이든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할 때 체육 교과 지식에 대한 명확한 관점의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구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내용 요소가 성취기준에 담긴 내용에 대한 주제로 요약해 제시됨에 따라 추상성이나 포괄성이 있어 다양한 재구성으로의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각 내용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구체화된 교수·학습으로 재구성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내용의 위계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로,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현행 성취기준은 그 진술 방식이 획일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해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고, 역량 함양을 위한 실제 학습으로의 실천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함으로 수업 설계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여섯 번째로, 정의적 영역의 내용으로 덕목을 제시하면서 각 내용인 덕목간의 배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와 영역과 덕목의 매칭에서의 작위성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적용 즉,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현장의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쟁점으로는 그동안 교육과정 문서나 보급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초점이나 성취 행동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미흡했다는 것과, 교육과정 실행 매뉴얼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부터의 이해의 공유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쟁점의 개선을 고려하여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면, 체육과 비전을 설정하여 이에 관련되는 체육과의 고유 역량으로의 특성과 구조를 갖는 역량을 구성하고, 총괄 목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하위 목표 제시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목표 체계를 개선하며, 목표에 포함된 내용과 진술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별 위계로 차별화된 진술을 제시하도록 목표 진술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철학, 교육 효과, 목표 및 역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대영역의 구성, 차별화된 내용의 중영역 설정과 교수·학습에 밀접한 내용 요소의 구성, 학교급 또는 학년군별 위계를 고려한 교육 내용 설정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구성 방향을 제안한다. 그리고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설정해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체육과의 학습 활동 방식과 성취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 및 진술 체계로 성취할 행동의 특성 또는 수준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취기준 진술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과 구체성과 포괄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한 정의적 내용(영역)의 제시가 요구된다. 덧붙여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개선에는 교육과정 문서 이해를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체육심화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 현황 분석

박재정, 홍애령* 한국교원대학교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13개 대학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인원의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각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본연의 목표인 초등 예비교사로서의 졸업생 취업 및 지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계의 연구는 체육교과 지도에 대한 관심, 어려움 등의 인식 연구(김재운, 2007; 김주영, 백종수, 2015; 김중형, 백종수, 2011;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신기철, 2014; 장경환, 2020; 정병근, 2020)에 집중되었으며, 수업 컨설팅(이재용, 2011), 수업 실습(전영한, 이충환, 2009) 등의 사례를 통해 직전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향(김명수, 2017; 김주영, 강효영, 백종수, 2018; 박재정, 양정모, 이동호, 2011)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의 직전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되고 전공과정 중 심화과정은 초등학교 필수 교과 중 특정 교과를 심화 학습함으로써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김순희, 2005),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심화구성원들과 함께하며 비공식적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박재정, 2017). 이에 교육부의 교원무시험검정 기준에서는 심화과정 운영에 최소 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 대체로 20학점 내외를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심화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각 대학별 필수와 선택 과목이 상이하게 개설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체육심화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하여 학점 및 시수, 개설학기, 교과목의 비중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총 12개 대학의 체육심화 교육과정 편람 및 학사 공지를 통해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 현황을 수집하여 대조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점 및 시수는 16~24학점(20~25시수)의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개설학기는 대체로 4학년 1학기(29개, 23.0%)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교과목의 비중은 개별 체육실기 및 지도법, 실기, 이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체육심화 교육과정은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직전 교육과정임에도 국가수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즉 신체활동가치에 따라 구분된 5개 영역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론 과목의 경우 교수 구성원의 전공과 관심사에 따라 교과내용학 과목 중심으로 개설되었고, 교과교육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김주영, 강효영, 백종수, 2018). 이를 통해 초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체육심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개설에 있어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즉각적인 반영과 현장성에 기반한 실기 및 지도법 교과목의 강화, 비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한 비교과활동 연계를 제안할 수 있다.

통합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관한 연구

윤진주, 박종률* 한국교원대학교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능력주의 교육에서 개개인을 중시하는 상생의 교육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통합체육 교육에서의 철학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통합(integration)과 포용(inclusion)의 개념을 구분하여 학교체육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육 교육을 이해해야 한다(Haeghele, 2019). 이를 위해 통합체육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체육 교사는 어떠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 교사가 통합체육 수업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생 지식, 체육 내용 지식, 체육 교수법 지식, 체육 교사를 둘러싼 환경 지식, 교사 자신에 관한 지식 형성 과정을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포용(inclusion)을 실천하는 지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체육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H 교사를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통합체육 수업 관련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체육 교실 운영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첫째,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계기로 학생 이해지식을 형성하였고, 그 후부터 만나는 다양한 장애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파악하여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수업의 다양화를 실천하였다. 둘째, 모든 체육수업에서 장애 학생을 고려한 중목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개별 학습자를 고려한 체육 교육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셋째, 체육 교수법 지식으로 H 교사는 주변 인프라의 도움을 얻어 장애 학생 기능 수준에 맞는 성취도 평가 방안을 설계하였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은 많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로의 벽을 허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넷째,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수업지식은 모두가 온전하게 포용된 통합 체육수업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료 교사의 인정과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잊지 않고 반기는 장애학생과의 만남, 자신이 실천한 통합 체육수업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지지와 인정은 든든한 사회적 자본으로 체육 환경 지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다섯째, H 교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짜 좋은 체육 교사가 되고자 하였다. 이렇게 H 교사는 완전한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는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자신의 수업부터 개선하면서 한 걸음씩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통합체육 수업 실천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 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사 교육으로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전 교사 교육에서 체육 교사의 통합체육 지도역량 개발을 위한 통합체육 교육과정의 요청된다.

끝으로, 모든 체육 교사들이 통합 체육수업에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쉽게 다가서기를 소망한다.

* pjl0703@knue.ac.kr

고등학생의 그릿(Grit)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승현·이용국 · 김민철* 동아대학교

체육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체육이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내용에 치중되고 있다. 또한, 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은 심화한 교육내용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동철, 김성덕, 김수잔, 2013). 또한, 진로를 설정하여 뚜렷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취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이 체육수업의 목적과 학생들의 적성, 소질에 맞는 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현행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과 기초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체육 인재 양성에 실증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급을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배부된 434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410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3.0 및 AMOS 23.0을 이용하여 학급 유형에 따른 각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고등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급집단과 일반 학급집단 간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학급 유형의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학급 유형에 따라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급이 일반 학급보다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집단분석 결과,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두 집단 모두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학급 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가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동안 일반 고등학교 및 일반 학급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소질계발 및 진로 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급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학업에 긍정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의 행동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노력하는 그릿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뉴스포츠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의적영역 교육실천사례

이가람*국립목포대학교 •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뉴 스포츠 활동을 음악과 미술 등의 융합 교육 활동을 통해 정의적 영역 교육 실천사례를 탐색하여 정의적 영역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목적달성을 위해 첫째, 정의적 영역 교육을 위한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둘째, 정의적 영역 교육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수업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M시 소재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신체활동 ‘몸과 맘 다함께 두리둥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8회기 동안 뉴 스포츠 활동을 정의적 영역 내용에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수업 운영을 한 연구자 자신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수업일지와 4명의 보조강사의 수업 관찰일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면밀히 읽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귀납적 범주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적 영역 교육 중 인간적 소양 교육 실현을 위해 표적 도전 활동을 선정하였다. 학습 내용과 활동으로는 안내심과 끈기 기르기 - 토스볼, 집중력 기르기 - 플라잉디스크, 자신감 기르기 - 컬링, 배려심 기르기- 풍선을 이용한 빅 민턴, 예절 실천 - 풍선을 이용한 핸들러, 신체 인식 및 자기 결정력 기르기 - 한궁, 두려움 극복하기 - 풍선 만들기, 표현능력 기르기 - 컵 난타 등의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의적 영역 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학습목표와 내용 및 활동의 일관성, 달성 가능한 자발적 목표설정, 과제제시에 있어서 확대 과제 활용, 학습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으로의 전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성공과 실패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도구 활동에서의 안전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해 칭찬스티커, 간식을 준비하였고, 학습교구 및 준비물은 다양한 뉴 스포츠 도구, 편한 복장 등을 준비하였다. 수업 진행에서는 수업 전 활동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지난 수업 활동에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이야기 나누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며 오늘의 수업을 준비하였다. 수업 도입단계에 수업 시간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설정하였다. 예쁜 말 사용하기, 뽀내지 않기, 울지 않기. 다치지 않기. 규칙 지키기, 함께 하기 등 6가지를 매시간 약속하고 확인하였다.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본시 학습 내용인 정의적 영역 내용을 설명하고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내용을 수업 중간중간 크게 외쳐주어 기억하도록 하였다. 기술 연습 중에는 “잘해라! 잘해라!”, “괜찮아!, 괜찮아!”를 연거푸 외쳐주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도 다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적 수행을 통해 성공감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목표달성을 경험한 학생들은 ‘하이파이브’로 성공을 축하하고, ‘기쁨. 신남, 성취감’ 등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업 운영 중 어려움과 문제점으로는 우선 개개인 학생의 반응과 변화를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웠다. 수업 참여 학생들은 16명이며 이들 중에 저학년 학생들이 있어 심동적 영역의 난이도를 낮추었고, 매시간 중점 내용인 정의적 영역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며 내용 - 활동의 관련성을 이어 갈 수 있게 하였지만, 개개인 학생의 반응과 변화를 모두 읽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나친 경쟁심을 안내심과 끈기, 배려와 예절 실천, 극복으로 이해시키고 경쟁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술 연습에만 집중하려 하고, 경쟁심이 과한 남학생들을 자중시키는 부분에 시간을 비교적 많이 할애 해야 하는 점도 있었다. 표적 도전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던지기, 맞추기, 치기 등의 반복적 활동으로 인해 신체 조절 능력이 낮은 저학년 학생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칭찬스티커와

* 이가람 linegaram@naver.com

간식을 이용한 간단한 게임으로 활동 과제를 변경하였는데 그런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친구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하하며 서로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의 학습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정의적 영역의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비교적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연하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단어의 내용을 답해주었고 팀과 짝꿍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단어들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에게 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정의적 영역 교육 실천과정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이해, 체험, 소통이 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방법의 체육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적 영역학습은 이해와 적용과정을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반복적인 상황 학습을 통해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의적 영역 내용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놀이를 통한 스포츠 문화 교육 실천 방안

김희애** 국립목포대학교,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몸과 맘 다함께 두리둥실’ 프로그램에서 신체활동으로 전통놀이를 선택하여 전통놀이를 통해 스포츠 문화교육의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학생들이 참여한 전통놀이 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들은 전통놀이 활동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셋째, 전통놀이를 통한 스포츠 문화 교육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M시에 위치한 N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1학년-4학년 초등학교생 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현 체육교육과정과 논문 및 연구 자료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고 수업 후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날짜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는 연구자, 스포츠 교육학 박사과정 2명, 지도교수가 정기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전통놀이를 총 8회기에 걸쳐 매주 1회 60분씩 진행하였다. ‘몸과 맘 다함께 두리둥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화유산인 전통놀이를 알고 체험함으로써 스포츠 문화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다.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움직임의 능력 향상, 존중, 배려, 소통을 교육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교육활동은 대문놀이, 꼬리잡기, 탈놀이, 한삼놀이,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윷놀이 프로그램이며, 교육방법은 설명, 체험, 성찰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고 전통놀이의 진행방식을 가르치고 진행하였으며 장구, 탈, 한삼, 고무줄, 종이테이프, 윷가락, 관련음악 등 다양한 수업교구를 사용하여 전통놀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후, 느낌 나누기를 통해 수업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전통놀이를 함께 한 느낌은 어떠하였는지, 참여자들만의 전통놀이를 만들었을 때 표현의 색다른 시선을 갖는 경험은 어떠하였는지를 서로 나누어 보았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대문놀이, 꼬리잡기, 사방치기, 윷놀이는 익숙함 속에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었다. “리듬에 맞추어 움직일 때 재미있었어요”, “위, 아래로 움직이는데 위로 올라갈 때 잡고 싶었어요” 등 적극적 움직임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지만 익숙한 전통놀이를 우리만의 전통놀이를 만들기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웠어요” 라는 어색함과 상대 모둠의 표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체육교육과정에 있어 이론으로 알고 있거나 경험이 적은 탈놀이, 한삼놀이, 고무줄놀이는 놀이의 낯설음을 적응하기까지 전개 부분을 더 늘려야 했다. 탈을 제작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어요” 와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바닥에서 줄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저는 그만할래요” 와 같이 어려워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불림을 하며 쿵쿵 걷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내가 만들어서 함께 표현한 것이 뿌듯했어요” 등 어려웠지만 신체와 표현 활동의 성공으로 전통놀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전통문화를 통한 신체 활동의 성공은 전통놀이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서로를 위한 존중과 배려하는 사회적 능력인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포츠 문화 교육 실천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통놀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적극적인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 및 문화 예술의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활용을 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융합 교육을 적용하여 감성적 체험의 다양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타 교과와 전통놀이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탐구 학습을 통해 전통놀이와 스포츠의 공통점, 차이점 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전통놀이를 통한 스포츠 문화교육의 실천은 전통놀이가 하나의 놀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

* 김희애 tmdgy0301@nate.com

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 여가, 경쟁, 표현 등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전통놀이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실행에서의 어려움 극복과정: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원채윤* 국립목포대학교 •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본 연구는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전문성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학습공동체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사업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둘째,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어떠했는가? 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10년 이상 초등학교 지도경력이 있는 지도자 3명, 멘토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다. 자료수집은 수업지도안, 관찰일지, 성찰일지, 대화 기록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A4용지 기준 200장으로 확인되었고,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관찰일지, 성찰일지, 대화기록 부분을 기술하여 전사하였고, 조직화 된 자료를 분석,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인력, 예산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구성에 있어서 지도자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각자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운영인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어 지도자를 확보하였고, 이후 프로그램 취지와 교육 목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첫 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 이후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이후 짧은 시간과 대학원 수업 이후 강의실이나 카페에서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정을 하였고 진행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SNS 단톡방을 이용하여 각자 자료를 공유하였다.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방향,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 과정은 기존에 행해왔던 지도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회기 동안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지도자들의 기존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별로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 시간, 대상을 섭외하여 운영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이며 지도자 2명의 빈 시간과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요일과 시간을 선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장 단톡방에 공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최종적으로 섭외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도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구성원 모두가 학습공동체를 실행하면서 지도자 간의 의견충돌 및 업무과다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동 목표가 있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며 공동체 초기 단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지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간 네트워킹 강화, 공동체간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존중, 신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된 의지와 공감대 형성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원채윤 teamplay2013@daum.net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색

이주영, 윤 강*, 조건상 부산대학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주도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특징을 지니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영역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성’과 함께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융합 교육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커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체험중심의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활동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메이커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누구나 지도하고 배우기 쉽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체육교과를 통해 메이커 교육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정규교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를 분석하여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목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 5명과 메이커 교육 경험이 있는 중학교 학생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포함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들을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주화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대상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적용에 대한 기대’와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로 범주화하였다. 세부적으로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적용에 대한 기대는 현 체육수업 문제점 극복,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학생들의 동기 및 흥미유발, 테크놀로지 활용이 있다.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학생의 인식 개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장비 및 도구의 간소화, 용이한 프로그램 제공이 있다.

둘째, 학생 대상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선호 교수·학습 방법’과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로 범주화하였다. 세부적으로 선호 교수·학습 방법은 협동학습, 경기 위주의 실습, 자기주도 학습, 교사 시범에 따른 연습이 있다.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활동에 따른 기대는 흥미 및 성취감 향상, 원리의 이해, 다양한 체험, 결과물 활용 신체활동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교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은 각각의 범주화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현 체육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학교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메이커 교육 시행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 용이한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교사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또래동기분위기가 자아존중감 및 라이프스킬에 미치는 영향

채유리 , 이지혜**, 조건상 부산대학교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발달 특성상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대학입시라는 치열한 경쟁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에 진로에 대한 걱정, 주위의 성취기대와 교육적결과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형성과 갈등 등을 겪고 있다(이해경, 2012).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 및 긍정적인 사고형성에 영향을 주는 체육활동이 대두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정규 체육수업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체육활동을 시행하였다(김범식, 박종진, 2000).

방과 후 체육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에 긍정적인 인식과 체육활동에서의 도덕성을 가진 행동과 규칙을 통해 인성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성을 높여준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들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교우관계 및 또래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이승희, 2010). 또, 체육활동은 학우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켜주며, 동료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개인의 내적동기, 운동수행 및 동기분위기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송용관, 2019). 이러한 또래 간의 동기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동료 나 친구 간의 관계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재미, 불안감소,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Mayo, 2002),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심리적 기술인 라이프스킬이 발달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오경숙, 김유미, 2014). 이를 통해 또래동기분위기, 자아존중감, 라이프스킬의 요인들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또래동기분위기가 자아존중감 및 라이프스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 35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23명의 자료를 제외한 327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을, 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동기분위기, 자아존중감, 라이프스킬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또래동기분위기는 자아존중감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라이프스킬에서도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라이프스킬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 후 체육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 방향성,

* leejh110620@naver.com

더 나아가 평생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연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양근* 중앙대학교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 향상, 과학기술 발달,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히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 전체 인구의 25.5%, 2040년 전체 인구의 34.3%로 증가됨으로써 노인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84%가 1개 이상, 54.9%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9.9%를 차지하며 사망순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순으로 확인되었다. 만성질환은 노인의 활동제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만성질환 의료비는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부담 감소를 위해 노인의 스포츠 활동 필요성 인식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예방적 접근과 국민 의료보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운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노인의 대표질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 질환 예방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센터인 삼성노블카운티와 서울시 50+ 성북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였다. 두 센터의 담당자 인터뷰 결과, 노인의 건강 문제점으로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등의 만성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와 낙상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스포츠의학회는 노인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주 2회의 근력운동을 제시하였다. 운동의 형태는 중강도 이상의 복합운동을 적용했을 때 신진대사 활성화, 체중 감소, 심폐능력 향상, 혈중지질 개선 등의 효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흥미와 지속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노인 운동으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관절가동에 도움이 되며, 근력이 증가되는 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신체 협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걷기 운동과 같은 규칙적이고 적절한 신체활동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개선, 낙상 위험과 척추 골절 위험 감소,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 질환, 비만, 우울증 감소, 면역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인 ‘밸런스워킹PT 복합운동’을 활용하여 노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ADDIE 모형에 기초하였고, 체육교육과정모형은 체력교육모형, 체육수업모형은 직접교수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고, 노인의 건강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운동습관 제고를 위한 건강 교육 및 질환 관련 동영상 시청 시간을 매 수업시간에 포함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하여 노인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의 효과성 검증 후, 전국 지역건강센터로 보급되어지길 기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탐색: A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동수, 이주옥* 충남대학교

2005년 이후부터 학생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나 비만 증가라는 사회문제와 저출산 대책사업의 연결고리로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의 질적 성장은 멈춰 있는 현실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 여건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관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본 연구는 A 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0교시, 식사시간 후, 방과 후, 교내리그, 틈새시간, 토요일 스포츠데이 등)의 운영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로 순차적 설명전략을 활용하여 문헌 분석, 설문 조사, 사례 조사,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설문 조사를 통한 운영실태로 인식, 연계, 운영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했다. 첫째, 인식의 문제로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 지도교사의 전문성 결여, 대회 미참가 학생의 인지도, 관심도, 필요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계의 문제로 학교급 간 종목의 연계 부족, 여가활동 연계 부족, 지도교사의 연계 부족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의 문제로 학교별 종목 수 부족, 학교 환경 및 예산 지원의 부족, 대회 입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별 홍보시스템 구축, 교내 리그와 지역 거점 리그의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동호회 운영, 인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언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학교마다 정통성이 있는 클럽을 구성하고 실천하여 명품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joowookyi@cnu.ac.kr